

[홈](#) > [뉴스](#) > [문화](#) > [문화일반](#)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국역 '추안급국안' 90권 출판

2014년 09월 26일 (금) 13:02:48

서한솔 기자 ✉ rachelnews@naver.com

[충청일보]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6일 10년 만에 조선 후기 정치·범죄사회사 자료인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90권을 국역 출판했다고 밝혔다.

이번 번역사업은 2004년 처음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시작해 10년간 진행된 방대한 사업이다.

추안급국안은 선조 34년(1601년)부터 고종 29년(1892년)까지 약 300년 동안 변란, 역모, 천주교, 왕릉 방화 등에 관련된 중죄인들을 체포, 심문한 기록이다.

© 충청일보(<http://www.ccdail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